

ISSUE 48

2021 Jan-June



모든 민족과 함께 가는 생명의 길

## 코로나의 영광



# CONTENTS



## 1

나를 감싸는  
하나님의 손

소마(스리랑카)

p.06

---

## 2

민음의 길

이순열&장정아  
(한국)

p.09

---

## 3

첫사랑의 회복

디피카(인도)

p.14

---

## 4

주님의 선하심

박은혜(한국)

p.18

---

## 5

코로나의 교훈

로시(중국)

p.22

---

## 6

하나님의 영광

박천석(한국)

p.26

---

# 코로나의 영광

## 고세중(MVC 담임 사역자)

우리는 지금 특별한 상황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바이러스 역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 바이러스 역병의 영향으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거나 심지어 죽음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며,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과 대면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이것이 비록 악한 자들이 악한 의도로 벌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또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그러므로 모든 상황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다. 즉, 과연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사랑하는가를 보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신실하게 유지된다면 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교훈은 나를 더욱 성장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역설적으로 고통 가운데 나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코로나” 라는 바이러스의 이름과 “코비드-19” 라는 특정한 바이러스의 번호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원래 “코로나” 라는 것은 교회 안을 밝히기 위해 높은 천장에 달아 매는 “원형의 촛불 등대” 를 일컫는 말이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가 우리 안에 원형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바이러스의 일련번호인 19는 히브리어의 19번째 알파벳인 “쿠포”, 즉 소망을 의미한다. 그래서 “코비드-19” 란 “우리 안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바이러스의 이름과 숫자는, 비록 하나님의 손이 누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나에게 압박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나의 소망이 무엇 인지 확인하고 그 소망에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영광”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때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정말로 그 가운데 당신의 진정한 소망을 찾았는가?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틀림없이 모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 이다. 아직 보지 못했다면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은 당신이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할 것이다.

고 세 중

# 나를 감싸는 하나님의 손

소마(스리랑카)

8개월 만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집에 다시 오게 되었다. 이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정말 기쁘다.

*시 103: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 103:15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그 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18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 모두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COVID-19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찬양을 올려드린다.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걱정거리들이 나를 둘러쌌지만 고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JC아카데미 훈련을 받으면서 내 마음 속에는 예수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기쁨이 점점 커져갔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기간은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다. 바이러스로부터 보호 하실 것을 믿었고, 내가 일하고 있는 주인 가정의 어려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주인 가정의 가족들은 직장을 잃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로인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또한 집 주인(마담)은 임신 중이었고, 쉽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아이를 출산했다. 마담은 작년 출산 중에 첫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한 것을 하나님께 더 특별히 감사했다.

그녀는 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그녀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모든 상황을 살림으로 답해 주셨다.

이렇게 몇 달이 흘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들의 자녀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조금씩 변화되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그 이후로 나는 큰 책임의 직무를 맡게 되었고 이 전보다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매일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읽고 형제 자매들과 전화로 교제 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의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았다. 봉쇄로 인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한지 오래 되었다. 그러나 MVC에서 배운 가르침으로 쌓아 올린 영의 가족들과의 관계들은 흔들림 없이 견고했다. 끊임없이 나와 함께해주고 나를 격려해주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나의 여동생이 매우 심각하게 아팠었다. 나는 영의 가족에게 여동생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고 나의 여동생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함께하시며 나를 인도해주시고 계시다

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요드는 나를 보호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과 아보트들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다. 이 길에 대한 더 커진 확신과 더 자라난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갈 것이다.

## 믿음의 길

이순열 & 장정아 (한국)

마침내 하나가 된 순열, 정아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는 결혼을 앞두고 참으로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간증 함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아 : 1월27일 쿠웨이트 비전트립에서 언약 발표가 있었다. 사실 그 당시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언약결혼에 대한 많은 갈등과 의심 있었고, 또한 인내 하며 고군분투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약결혼을 소망하면서 나는 언제, 누구와 결혼을 할까 라는 육신적인 생각들을 뒤로하고 오직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던 순간들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가 정해진 신랑과의 만남은 나에게 지극한 행복을 안겨주었다. 그때 나는 앞으로의 여정가운데서 또 다른 의심이 생기고,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 한 순간이 왔을 때 이 순간을 기억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순열 : 언약결혼에 대해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나의 솔직한 마음은 조금 더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아버지께서는 항상 결혼할 수 있도록 네 가치를 올리고 준비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비전트립의 마지막 순간,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언약 발표는 모든 것

은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만큼 부담이 아닌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우리는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했다.

정아 : 6월27일 결혼식 일정을 잡아두고 나는 남편과 2주의 시간을 보낸 뒤 한국에 돌아왔다. 내가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많이 변해있었다. 예배가 중단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졌다. 우리 둘의 결혼식도 막연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결혼식 전에는 코로나가 끝나겠지 나를 다독여 보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온 나라의 공항이 문을 닫고 세상이 멈추었고 예정되어있었던 우리의 결혼식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5개월의 기다림 위에 기약 없는 기다림이 더해지자 너무나 아득하였다. 그럴수록 나는 언약발표의 순간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갔다.

순열 : 언약이 발표 후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우리 가족은 13명 전원 한국행 티켓을 예매하고, 결혼식을 위한 계획과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갑자기 전 세계가 난리통이 되더니 공항이 닫혔다. 모든 계획은 무산되었고, 한국행 티켓의 환불조치와 함께 언제 한국에 갈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간절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6월의 결혼식은 취소되었다. 모든 것들이 처음 우리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과 달리 완전히 뒤틀려버리기 시작했고, 나는 걸으론 관찮은 척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은 기다림으로 지쳐가고 있었다.

정아 : 오랜 기다림 속에서 공항이 다시 열리게 되었고 결혼식 날짜가 10월 10일로 다시 잡혔다. 더 기쁜 소식은 그날 고목사님과 유사모님

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기쁨은 남편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남편의 비자 문제와 고목사님과 유사모님의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인하여 한국 행이 또 취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남편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진행하던 혼자만의 결혼준비는 다시 멈춰지고 뜻밖에 목사님의 콜링으로 SJ 아카데미를 준비하게 되었다. 학교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청소와 급식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과 다음세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 참으로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 결혼의 연기에 대한 좌절을 잊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었다.

순열 : 손에 닿을 듯 닿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은 나에게 피로감을 주었다. 기다림 끝에 다시 공항이 열리게 되었고, 영의 부모님과 함께 하는 10월 10일 결혼식이 결정되었다.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 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의 비자에 문제가 생겼고 그와 동시에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 지 모른다는 또 한번의 좌절이 찾아왔다. 나는 옥상과 지하를 오가며 아침 저녁으로 주님에게 눈물로 기도를 했다. 그 시간은 나의 결혼식이 교회의 결혼식이 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다.

정아 : 그리고 얼마 뒤 11월에 고목사님과 유사모님의 한국 행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남편의 비자는 처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우울함과 불평에 매몰될 수도 있었던 당시의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듯이 남편의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하다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렸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존재하고 당신이 나의 남편인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히 기쁘고 감사하다고 눈물로 고백했다. 지금도 또한 앞으로의 삶도 그러할 것 이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훈련

으로 여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자고 약속하며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 열심히 SJ 아카데미를 섬기고 남편은 또 MVC에서 교회 일에 전념하였다.

순열 : 결혼식은 여전히 미정인 상태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한국으로 떠나셨다. 그 날 옥상에서 참 많은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하는 내가 원했던 결혼식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식 그 자체를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기도했다. 그리고 3일 뒤, 비자가 열렸다는 놀라운 소식과 함께 나는 22일, 마침내 한국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 공항에서 검사를 마치고 마침내 정아와 만나게 되었다. 정아와 8개월만의 재회를 하고 정아네에서 격리를 하며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방으로 뛰어다녔던 정아와 교회분들의 눈물 나는 섬김을 통해 마침내 11월 8일, 결혼식이 열렸다. 정아네 부모님은 진심으로 나를 기뻐 해주셨고, 혼주석에 앉은 고아버지와 유어머니 그리고 화면 속에선 쿠웨이트의 가족들이 결혼식을 축복하며 함께 해주고 계셨다. 하나님 안에서 육신과 영의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고 그 동안의 기다림과 훈련이 이 언약을 성취하게 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만들었다.

정아 : 나의 소망이 아닌 아버지의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셨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 나의 반쪽이 나타났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으로 성취되는 시간들이었다. 그러했기에 더욱 진한 감동과 하늘의 기쁨이 넘쳤던 결혼식이 되었다.

이 순간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부부가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또 다른 형태의 좌절이 올 것이고, 그때 더 큰 인내가 요구 되

어 질것이다. 이 소중한 기억은 우리를 아버지를 신뢰하게 할 것이고 비전의 길을 이탈하지 않게 할 것이다.

순열 :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함께 기다려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신 JVC와 MVC 가족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또한 이 모든 결혼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아보트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 토털비전의 여정을 기쁨으로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증을 마친다.

# 첫사랑의 회복

디피카 (인도)

시 35:28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간증을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25년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회상하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간증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만지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내 삶을 생각해보고 측정하면서 나는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나는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항상 보았다. 어릴 때부터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 부모님은 나와 언니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고,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결핍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셨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교정해주시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다.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의 상황은 엇다운이 있었다. 나의 부모님은 가진 것 모두를 잃으시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부터 배신도 당하셨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 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님께 순종을 잘 하는 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실상은 나는 세상을 사랑해서 부모님을 떠난 탕자와 같았다. 부모님의 충고를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나의 주장을 앞세웠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나는 내 삶이 이미 망가져버렸다고 생각했다.

2017년 MVC에서 침례를 받을 때, 나는 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깨달았지만 부모님께 나의 잘못을 말씀 드리고 용서를 구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용서를 구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며 나의 영의 생명의 끝난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빠졌었다. 2018년에 나는 더 깊어가는 세상 사랑으로 인하여 구덩이 속으로 더 깊이 깊이 들어갔다. 나의 영이 부서지고 산산 조각나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과 MVC리더들과 공동체는 이런 나를 포기 하지 않으셨고, 한결같이 지지해주시며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고, 그 날에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될 것이라고 지지해 주었다.

드디어 이 순간이 2018년 연말부터 시작되었다. 2019년을 맞이하기 위해 교회에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나의 어둠의 상태는 여전했다. 여전히 혼돈스러웠고 그로 인하여 교회를 향하는 나의 마음은 무거웠다. 예배가 시작 되고, 레아 자매의 <first love> 찬양이 들려왔다. 갑자기 나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다. "헤매던 나를 부르신 주님 잃은 자 위해 내 삶을 드리리" 무겁게 짓눌린 나의 마음을 주님이 만지고 계



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순간 나의 첫 사랑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영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따를 것이라고 결단했다.

나는 멋진 육신의 부모님과 영의 부모님 그리고 한 몸 된 영의 가족이 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다. 고 목사님과 대화를 할 때면, 고 목사님께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내가 지금 어느 과정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느낀다. 나 자신만을 보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육신에 갇혀 있던 나를 영의 부모님께서 얼마나 큰 인내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내가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나를 포기 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 사랑에 항상 경탄하며 감사한다. 어떤 삶이 또 나에게 다가 올지라도 그것이 고통과 어려움일지라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는 큰 축복을 받은 딸이다.

그 모든 깨달음은 내 삶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간증인가를 알게 해주었다.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과 동일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나의 간증을 나누었고 그들은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낙푸르에 사는 어린 소녀들에게 나는 나의 간증을 나눌 수 있었다. 나의 간증은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해주었다.

2019년은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다. 마치 내 삶의 새로운 시작과 같았

다. 나는 찬양팀에도 들어갔고, 고향 땅(Homeland)에도 방문했다. 내가 세상 사랑에서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영의 축복을 더하셨다.

MVC에 온 뒤로 내 생명이 변했다. 고목사님의 훈련은 나를 육신의 정욕에서 떠나게 했다. 이제 내 삶의 목적은 예수를 닮는 것이며, 세상을 향한 이기적인 정욕에서 떠나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에 집중하는 것이다. 비록 토라의 가르침이 이해하기 어렵고 쉽지는 않지만 매 순간마다 노력하고 있다.

고목사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출애굽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때, 좌절하며 망설이지 말고 더욱 전진하여 주변 사람들의 모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을 기억하며 우리의 비전을 펼쳐나가기 위해 형제 자매들과 더욱 하나되고 사랑할 것이다. 영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 주님의 선하심

박은혜 (한국)

제작년 이맘때 하누카 이튿날 꿈같은 결혼식을 마쳤다. 결혼 후 한달 만에 찾아온 다윗이를 임신하고, 작년 9월 한국 방문 중에 예정일 보다 7주 빨리 아기가 태어나 그곳에서 산후 조리를 하고, 11월달에 이 곳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올해 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다. 나의 삶은 다윗이의 출생 전후로 나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아이 하나를 책임 지며 그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다. 남편의 도움과 베이트 에하드 멤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을 것 같다. 육아를 하면 할 수록, 같은 비전 안에서 육아를 공유 하는 공동체의 귀함을 많이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커주는 다윗이를 보며 날마다 감사할 따름이다.

코로나가 시작 될 무렵, 긴장 되었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과 유럽에서 코로나가 막 확산 되기 시작 할 때에, 이스라엘은 국경 문을 열어 둔 채 안일하게 대응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녀간 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판은 뒤집혀지기 시작했다. 점점 확진 자 수가 늘어 매일 300-400명씩 증가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많은 한국인들, 특별히 히브리대 학생들은 거의 모두가 한국으로 돌아갔다.

결국 락다운이 시작 되었고, 그 때부터 우리는 발이 묶인 채로 베이트 에하드에 모여서 드리던 금요일예배와 샤푸도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에는 참을 만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 수록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가끔씩 만나는 베이트 에하드 식구들을 보며 외로움을 달래야 했다. 올해 초막절에 예정

되었던 순례 여행도 취소가 되고 이스라엘에 오고 싶어하시는 아보트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마음이 울적해 졌다. 어떤 날은 정말로 아보트들과 지체들이 보고 싶어서 만나는 꿈도 꾸고 눈물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답답함과 우울함도 잠시, 가만히 집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셨다. 먼저1차 락다운이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다. 여기서 일을 한다는 개념은 재정을 위함도 있지만 비자의 해결과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함이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래 체류하지 못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 학생 신분으로 와 있어, 공부가 끝나면 더이상 비자를 연장할 수 없어 떠나야만 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서는 더욱 우리가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셨다. 그래야만 이곳에 오래 체류 하며 더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은 우연히 기숙사 게시판에 걸린 구직 공고를 보고 연락을 했는데, 이스라엘 회사가 아닌 네덜란드계 인터넷 회사에서 이스라엘 유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컨설팅회사로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학생들만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스라엘에서 학생 비자로 체류할 경우 이스라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스라엘 회사가 아니라 온라인 회사여서 학생 신분으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여서 가능했다.

또 하나는 남편의 석사과정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이 장학금은 원래 신청하려고 했으나, 남편의 석사과정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더이상 지원할 자격이 안돼 포기했던 장학금이였다. 그런데 장학금 지원 신청 마감일이 한 달 정도 지났을 즈음, 얼른 장학금 신청서를 쓰라는 메일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이 장학금 프로그램이 추가 펀딩을 얻게 되어 두 명의 학생에게만 장학금 기회를 주자고 결정이 되었고 남편을 평소에 잘 봐주신 교수님께서 특별히 남편을 추천해 주셨던 것 이었다.

또 하나는, 우연히 학교 사이트에서 한 광고를 봤는데, 남편이 소속 한 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한국인 학생이 필요하다

는 광고였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300만불 펀딩을 받는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연구보조원으로 고용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으로 수당이 지급이 되어 유학생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 연구 보조원 직을 맡게 되었다.

남편 뿐 아니라 현정 집사님에게도 현지 이스라엘 언어 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지금은 두개의 반을 맡고 있는 인기강사가 되었고, 열떨결에 나 또한 한 반을 맡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한번에 맞물려 일어났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있을 시간이 많다 보니,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특별히 한국문화가 이스라엘에서 대세인 요즘 한국어가 제일 인기가 많다. 나는 다윗이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학원이 있는 텔아비브로 직접 갈 수 없었지만,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가능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갑자기 몰려왔다. 주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 할 수 있는 고리가 생기게 되어 기쁘다. 기숙사 내에서도 이스라엘 가정, 중국 가정, 미국 가정 등 다윗이를 통해 많은 가정들과 교제를 시작한다. 아직 시작 단계이고 어떻게 진행 될 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일하신다. 그러나 매순간 우리가 얼마나 수동적으로 살아야 하는 지 깨닫게 된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 개인만 볼 때엔 한 없이 우울해 지기도 한다. 이번에 새 학기가 시작 될 때에 나를 제외한 모두가 바쁘게 공부를 시작했다. 그 때, 나는 변함없는 다윗이와의 일상에 무기력함을 느꼈다. 난 뭐하고 있지? 나의 소망은 무엇이지? 나는 자아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힘없이 끌려 들어갔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영역들이 하

나 들씩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자신감을 잃었던 것 같다.

어느 날, 베이트 에하드에서 유난히 잠을 못 이루는 다윗이를 재우며 창 밖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의 잔잔한 불빛들을 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어찌다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무엇이길래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지? 사실 예루살렘에 살면서 많은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만난다. 사역을 잘 하는 사람들,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들,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을 가진 자들... 많은 기인들 속에 나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느낀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아버지로부터 비롯 되었고, 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초 두 번째 아기 쇼프팀이 미처 착상을 하지 못하고 작별인사를 했다. 그 당시 장염처럼 심하게 아팠었다. 옆에서 육아와 병간호 그리고 살림을 묵묵히 혼자 맡아서 해주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다. 사실 쇼프팀의 임신 소식을 알기 전에 남편과 큰 다툼이 있었다. 이유는 그 당시 몸도 마음도 힘들었을 시기였는데, 어이없는 실수들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싸늘하게 대하는 남편의 모습, 그리고 내 어리석음에 화가 났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던 남편에 대한 이상이 깨지는 순간 이였다. 신혼 땀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본 모습이 나오는 건가? 그래서 아주 심하게 마음이 상하고 다시 화해를 했을 때, 쇼프팀의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쇼프팀은 재판장들이라는 뜻인데, 나의 잣대로 선악을 구분하는 것을 멈추는 주간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의 악한 모습이 드러났었던 것 같다. 막상 유산이 되었을 때에는 상황이 더 좋지 않았고 모든 상황이 나에게 악인 것 같았지만, 결코 우리에게 악이 아닌 선이었음을 고백한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너무 평안했다. 주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주셨다. 그 시험을 통과 하게 한 주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언젠간 다시 내려 올 쇼프팀을 기대한다.

# 코로나의 교훈

로시 (중국)

하나님의 집, MVC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다. 이 유행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 드린다. 이 시기에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으로 높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영광인지 모르겠다.

이 유행병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우리 모두가 흔하게 이야기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이기도 하다. 코로나가 감사한 일이라고 내가 말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고, 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직장 과 재정을 잃었을 것이다. 이 유행병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게 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들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다.

나의 직장 동료들 또한 이 유행병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정리해고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곳은 70명에서 50명으로 인원 감축이 진행 되었고, 20명의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 해고 된 20명의

동료들에게 나는 미안함을 느꼈다. 더 이상 직장에서 그들을 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MVC에서 목사님과 리더들에게 배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때문이었다.

해고된 나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나라로 귀국하여 쿠웨이트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토라에 대해, 히브리어에 대해 들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알 수 없을 것이며, 구원의 길을 갈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라도 현실이 된다면,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절망에 빠진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잘못일까? 8년동안 그들과 함께 한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을 것이다. 나의 게으름, 나의 무지함, 나의 부주의함으로 그들은 새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약 4:17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이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르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다.

*벧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

## 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내가 배운 두 번째 교훈이다. 처음 락다운 되었을 때,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경계했다. 위생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해졌다. 매일 손을 닦고, 바닥을 닦았으며, 방을 수십 번 청소하고, 남편이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열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공공 장소에서 누군가가 가벼운 재채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순식간에 피하거나 불쾌해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영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에게는 과연 이런 예민한 마음이 있을까?

14개의 영이 우리의 영의 삶 곳곳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인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14라는 숫자, 달렛과 요드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비밀이 있다.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의 머리에 고정하고,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에 고정하고, 우리의 문을 하나님의 문에 고정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고정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배운 세 번째 교훈은, 유행병은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이다. 락다운 전에, 나는 대학교 동창에게 성경책을 주었다. 그녀는 락다운 기간 동안 내가 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였다. 락다운 후에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삶의 평안과 안식을 준다고 고백하였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나는 3주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직도 기억한다. “바이러스는 나를 감염시킬 수는 있으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얼마나 큰 믿음인가! 우리는 이와 같은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큰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 이 큰 믿음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 큰 믿음은 시작된다.

*요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하나님의 영광

박천석 (한국)

코로나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내게 주신 훈련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 라메드는 하늘에 닿은 글자라고 배웠다. 올해 초 갑작스런 해고의 내용이 적힌 편지, 라메드가 왔고, 나는 이 라메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임을 직감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제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닌, 내가 주는 것들로 살아가게 하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

처음 한 두 달은 곧바로 이직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모든 길이 막히게 되었다. 당시 김원중 장로님은 <PE 시험>이라는 가이드를 주셨고, 이 시험은 고목사님 과의 ‘올해 내로 끝내 보자’ 라는 약속으로 시작되었다. 사실 당시 같이 일하자는 회사가 하나 있었고, 나는 ‘그곳에 잠시 동안 일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라는 현실과 타협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다.” 라는 장로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명중했다.

그 후 나는 주님께서 주신 시험이라는 특별한 훈련 과정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코로나로 다른 길은 모두 막혔지만, 주님께서는 단 하나, 이 시험에 대해서는 아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페레즈, 코로나를 뚫어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주셨다. 진행 과정과정마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주님은 내가 돌파 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주셨다.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런데 문을 닫았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수업을 하고 있다는 한국의 한 학원을 알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한국이 아닌 이곳 쿠웨이트에서도 동영상을 통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주님께서는 ANS라는 공부할 공간도 주셨다. 그리고 코로나로 모든 시험이 취소되었던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7월부터 1차 시험이 재개 되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뚫어가야 할 문제들은 많았다. 바로 직전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5월말까지 비자를 정리해야 했다. 그러나 회사는 코로나로 모든 관공서가 닫힌 것을 고려하여 내가 한국에 다녀온 후 비자를 정리할 수 있도록 선처 해주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간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때에 맞춰 카타르 항공편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시험이 끝난 후 쿠웨이트로 귀국하는 것까지 인도해 주셨다

7월에 한국에 도착하고 지체들의 도움으로 신촌의 한곳에서 편하게 격리하며 생활 할 수 있었다. 신촌에서 1차 시험을 앞둔 자가격리 시간은 오직 주님과 둘만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 나는 목마른 사슴과 같았고, 주님은 매일 아침 생명의 말씀들을 공급해주셨다. 주님의 푸른 초장에서 주님 품에 거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1차 시험을 봤고, 다행히 pass하여 2차 시험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쿠웨이트에 돌아와서는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1주만 더 기다려 보자는 마음을 주셨고, 마침 그 주간에 예전에 업무로 알게 된 한 분의 전화가 걸려 왔다. 우연히 나는 대화 가운데서 비자 문제를 이야기 하게 되었고 그 분은 비자를 해주겠다고 하셨다. 며칠 지연이 있었지만, 2차 시험과 자가 격리의 시간까지 약 3~4일의 여유를 두고 비자가 나왔고, 감사하게도 나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2차 시험을 위해 다시 카타르 항공을 타고 한국

으로 가게 되었다.

사실 한국에 가기 보름 전쯤에 몸살기운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다. 혹시나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다. 그 때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어려울 때일수록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는 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모습은 내가 이 땅에서 닦고 싶은 하나의 본이었다. 그 본으로 인하여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큰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격리 해야할 장소는 규정상 책 반입이 안 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책 없이는 안 된다는 나의 끈질긴 요청에 무증상자들이 있는 태릉훈련소로 입실하게 되었고 공부를 지속 할 수 있었다. 태릉 선수촌은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장소였다. 공기도 좋았고, 매끼 좋은 식사를 넣어주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리고 격리 10일 기준으로 무증상이면 퇴실이 규정인 곳으로 나의 격리 해제가 이를 앞당겨지게 되었다. 그 덕분에 밖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었다.

하나하나 돌이켜 본다. 학원 강의가 없었다면, ANS라는 공간이 없었다면, 카타르 항공이 없었다면, 비자가 그 때 나오지 않았더라면, 공부할 만한 격리장소가 없었다면, 한국에서 시험이 재개되지 않았다면, 비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그 때 아프지 않고 나중에 아팠다면, 태릉 격리시설이 아닌 병원으로 갔었다면... 하나하나의 상황들이 정확한 때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많은 교제들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더 명확히 보게 되었고, 아버지의 방법 알게 되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훈련을 온전히 받아 카프, 적용했을 때, 이제 그 훈련은 주님의 관리 아래 들어오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 기간에 내게 더욱 보란 듯이 길을 열어 주셨고, 코로나라는 어둠은 주님의 빛이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에 불과하게 하셨다. 하나하나의 모든 그 과정이 주님의 카프와 주님의 요드, 즉 모든 것이 주님의 손이었다. 이 손은 주님의 길로 향하게 하는 안내 표지판과 같았다. 이 길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잡지 않고, 앞서 가는 아버지들의 가이드를 따라 인내하며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짧았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장로님과 교회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코로나를 뚫어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들이었다. 이제 막 마흔의 시작을 앞에 둔 나에게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많은 메세지들은 앞으로 내 믿음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언젠가 마음 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다. ‘만약 이 모든 상황들을 알았다더라도 그래도 이 길을 택할 것인가?’ 그 대답은 ‘Yes’ 이다. 그것은 이 시간 동안 주님과 했던 교제와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보다 컸기 때문이다. 주님이 주신 물리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귀한 보석을 통해 나는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수 있었다. 다시 한번 물리적인 셋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간증을 적으며 레크레카의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른다. 육신의 눈에는 레크레카, 비록 네개의 알파벳이지만, 라메드 카프 라메드 카프... 훈련과 적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라메드의 훈련들을 온 마음으로 카프, 적용할 때, 주님께서 라메드를 주시며, 그것으로 또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시험이 끝나더라도 앞으로 이런 시험들이 계속 반복 될 것 이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것은 계속 훈련하고 적용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삶이 다음 자녀들을 이끄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 히브리어 알파벳 - 알레프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전체를 합치면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지 가르쳐 주는 것 입니다. 각 알파벳당 8개의 구절이 있는데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각 8개의 구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첫번째 알파벳 알레프의 구절들 입니다. 알레프는 하나님의 신성을 배워서 말하는 것입니다.

알레프는 신성이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형상도 없습니다. 시편 119편 1절은 '복이 있다'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슈레이'(알레프+쉬+레쉬+요드) 입니다.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신성의 삶은 복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1절은 복있는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입니다.

온전함은 탐, 율법은 토라 입니다. 복 있는 삶, 아슈레이의 삶에서는 완전함이 중요합니다. 알레프, 새로운 시작은 완전함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완전함의 비전이 있어야 신성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베틀가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함의 비전이 신성이고 새로운 시작임을 알아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성을 배우고 말하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고 완전함의 비전을 가지는 것이고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Middle East  
Vision  
Church

[www.kuwaitmvc.com](http://www.kuwaitmvc.com) Tel. 2543 6458  
6705 9336